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 독일의 역사가 랑케의 ㉠실증주의 역사학은 ‘자료 그 자체가 말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원래의 역사적 자료에 충실하면서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끝까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사료의 정확성에 집착하여 객관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역사학의 폭과 깊이를 축소시키는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었으며 인문·사회 과학의 세계에서 역사학이 자료 제공자의 위치로 전락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후 1970년대 구조 기능주의적 방법론을 주창한 프랑스의 아날학파가 서양 역사학계를 주도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정치보다는 사회, 개인보다는 집단을 역사 서술의 기본 골격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면서, 집단적 행동 양식과 가치관 같은 문화적 대상까지도 계량적으로 연구하고 인구 통계학이나 사회학의 계량적 방법을 통해서 삶에 대한 서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하게 된 ‘미시사(microstoria)’는 1970년대 중반 이탈리아 역사가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주창된 개념으로, 역사학을 ‘실제의 삶에 관한 학문’으로 규정하고, 계량화된 숫자 안에서 희미하게 드러나는 민중이 아니라 실제 살아 숨 쉬는 생생한 인간으로서의 민중을 기록하고자 하였다. 미시사는 이탈리아어로 작다는 뜻의 ‘micro’와 역사라는 뜻의 ‘storia’가 합성된 단어로, 우리말로 직역하면 ‘작은 역사’가 되는데 이는 역사적 대상을 작은 규모와 척도에서 관찰한다는 의미로, 예컨대 한 지역의 사건, 또는 어떤 한 인물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세세히 추적하는 것을 말한다.

미시사의 특징은 연구 주제, 사료의 종류, 서술 방식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미시사는 기존에 무시되어 온 연구 주제들, 연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간주되어 온 주제들을 중점적인 연구 대상으로 여겨 ‘평범한 농민의 세계관’, ‘산업 혁명의 거대 조류 속 소시민의 행동’ 등과 같이 작고 평범한 인물들의 삶의 모습들을 주제로 다루었다. 사료의 종류와 관련하여 미시사는 이전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이른바 ‘내러티브적’ 자료들에도 주목하였는데, 여기에는 재판 기록, 일기, 연대기, 편지, 탄원서, 설화집 등이 있다. ‘자료 그 자체’에 집중했던 랑케식 실증주의가 자신들에 대한 자료를 스스로 생산하는 엘리트 계급의 역사를 기술하는 데는 비교적 유효한 측면이 있지만 자료를 거의 남기지 못한 하층 계급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 주지 못했기 때문에, 미시사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내러티브적 자료들에 주목하여 그 안에 담긴 민중들의 이야기를 살핌으로써 이들의 가치관과 문화적 태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서술 방식에 있어서 미시사는 역사가의 주관적 서술을 드러내는 방식을 활용하였는데,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한 개인의 생각과 행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과정에서 역사가가 갖게 되는 의문점이나 생각도 역사 서술의 일부가 되도록 한 것이다. 미시사의 대표적인 저작물인 긴츠부르크의 『치즈와 구더기』는 한 인물을 이단으로 판정하는 재판 기록에 의거하여 서술되었는데, 저자는 인물이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할 때 생기는 의문이나 가설을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있다.

미시사는 그 접근 방식이 충분히 실증적이지 못하다는 점, 예외적인 주제만을 선호함으로써 사회 전체를 제대로 조망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한계로 지적받기도 한다. 하지만 역사에 대한 기존의 입증 방식과 인식 체계가 엘리트 계급의 문화 권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미시사는 기존의 역사학에서 잊힌 사람들, 즉 ‘보통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역사의 무대로 올려놓은 의미 있는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9002-0027

01 윗글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미시사의 출현 배경
- ② 미시사의 연구 주제
- ③ 미시사의 서술 방식
- ④ 미시사의 한계와 의의
- ⑤ 미시사의 사료 수집 방법

9002-0028

02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며칠 후에 심문이 재개되었다. 시장이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재판관들은 시장의 귀환을 기다리지 않았다. “마음속의 생각을 말해 달라.”라는 재판관들의 심문에 메노키오는 “저의 영혼은 숭고한 것을 추구하였으며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원하였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올바르게 나아가지 못하고 그토록 많은 허식으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하였다. 도대체, 방앗간 주인 메노키오는 정치·경제·사회적인 모순들이 함께 뒤섞여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그는 자신의 존재를 은밀하게 제약하고 있는 그 거대한 힘의 논리에 대해 어떤 상상을 하고 있었을까?

- 카를로 긴초부르그, 『치즈와 구더기』

- ① 인물이 법정에서 서게 된 행적을 집중적으로 세세히 추적하고 있군.
- ② 사건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인물의 말에 대한 역사가의 의문이 드러나고 있군.
- ③ 재판 기록이라는 내러티브적 자료를 바탕으로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살피고 있군.
- ④ 거시적으로 사회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서 일어난 특정 사건에 집중하고 있군.
- ⑤ 집단적 행동 양식 속의 개인이 아니라 방앗간 주인이라는 평범한 인물의 실제 삶의 모습을 다루고 있군.



9002-0029

03 ㉠의 입장에서 ‘미시사’를 평가한다고 할 때, 그 내용을 추론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시사적 접근은 역사 서술에 있어서 사회와 집단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 ② 미시사적 접근은 삶에 대한 서술을 함에 있어서 계량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 ③ 미시사적 접근은 개인의 생각과 행적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서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 ④ 미시사적 접근은 자료를 거의 남기지 못한 하층 계급에 대해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 ⑤ 미시사적 접근은 역사학이 인문·사회 과학의 세계에서 자료 제공자에 그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